

착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3-6

윤준원 선교사님

제가 복음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1997년인데,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복음운동에 들어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게 되었다. 부인이 못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잠시 접고 있는 동안에, 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까지 최정용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 최목사님이 통합 측 대선배시다. 목사님 한 마디면 내가 꼼짝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20년을 한결같이 엮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올 수 있었다. 그 힘을 최목사님께로부터 얻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최근에 김요셉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두 분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저다. 제 아들 윤이삭 목사님과 제가 합동으로 중매를 썼다. 김혜정 사모님은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사람이고, 김요셉 목사님은 윤이삭 목사님과 동기였다. 그래서 중매를 썼는데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니 감사하다. 쉽게 말해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참사랑교회 가족이라는 말이다. (웃음)

서론

(1)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다.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약하고, 세상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그들에게 던지겠는가?

- ① 3절에,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
- ② 4절에 보니까 기도제목이 나온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쉽지 않은 여건인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 ③ 5절을 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중요한 매개가 복음이다. 기도제목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것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도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두 가지를 잡으면 된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진도냐, 진도가 아니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다 풀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마스터 키다. 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것을 오늘 인도받아 보려고 한다.
- ④ 6절에서 이렇게 풀고 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제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아멘 뿐이다. 새로 구역장, 권찰이 되신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라.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할렐루야만 해도 된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 진도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 1)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 2) 하나님이 하신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과거는 에베에셀이다. 현재는 임마누엘이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다. 로마서 8:28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괜찮다.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도 괜찮다. 지금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는가? 내려놓아라. 구역에 말 안 듣는 사람 있는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려놓아라. 맡기시기 바란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이다. 이

것은 구역에서도, 삶에서도, 자녀 양육에서도 통한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다. 가슴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야 되겠다.

(2) 그런데 약한 일을 하는 것이 있다.

- ① 나와 관계없이, 오래 전, 창세 전에 흑암의 세력이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다(창1:2).
- ②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근본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창3:1-6).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롬3:23). 팔자를 못 벗어난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 ③ 이 뿌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세상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이고 육신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다. 성공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것이다. 여기에 다 잡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 이 뿌리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니까, 시달리고 또 시달린다. 에베소서 2:3, 그냥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1. 부르심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착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착한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르심이다. 한 번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다. 한 번 하나님이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늘 끝에 거해도 찾아오시겠다는 것이다. 세상은 달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것을 의지하지 마라(사2:22).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줄 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다(요14:6). 죄, 저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롬8:2). 마귀의 악한 세력을 멸해 버렸다(요일3:8).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19:30, 여러분이 오늘 주일낮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 여러분은 끝을 본 사람이다. 터미널, 종점이다. 터미네이터, 끝을 내 주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낸 사람이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고꾸라져도 손해봤어도 괜찮다. 끝을 알고 있다. 이게 복음의 보장이다. 승리가 마지막에 보장되어 있다. 개런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이 나온다.

-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
- (2) 복의 근원이다(창12:1-3). 전에는 저주의 근원이었다. 이제는 복을 받았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 (3) 놀랄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다(사43:4).
- (4)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사43:1).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 (5) 하나님의 상속자다(갈4:7). 수저계급론 이야기가 있는데, 출신에 속지 마라. 어떤 배경에 있든지, 우리는 최고의 신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가져다 쓰셔야 한다.
- (6) 행복자다(신33:29). '삼삼하다 이 구절'이라고 외워라.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다. 행복자라는 말을 실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 (7)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다(벧전2:9). 예수님이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시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붙잡고 사용해야 한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아침에 외치고 나간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다. 너무나 재미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한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익사이팅한 일이 어디 있다. 돈 주고도 못 하는 일이다. 복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 노 프라블럼, 러시아 말로 '니체보(Ничего)'라고 한다. 괜찮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이제는 영향을 안 받는 것이다.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꺾인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말고 이것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부르심이다.

2. 임마누엘

이제는 지속을 해야 하지 않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늘 확인해야 할 것이 임마누엘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세상 왕이 주관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자꾸 속인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역사하고 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다. 예수 이름에 구원도 있지만 임마누엘도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임마누엘이 왜 잘 안 되는가? 한 가지,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기존신자들도 그렇지만, 복음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억울한 일이다. 체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나?

(1)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요4:23).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끄찍하게 사랑하신다.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졌어도 회복하게 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회복하는가? 예배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벨엘로 올라간 것이다. 조금만 정신 차려서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어마어마한 사인을 누릴 수 있다. 심각하면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 이 응답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이다.

(2) 말씀과 기도의 맛을 봐야 한다(요15:7). 말씀 체험, 기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이상한 데로 빠진다. 어린 램넛트에게 말씀이 한 절만 들어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과 기도다.

(3)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도다(마16:33).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성공자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전도자가 무너졌다? 그런 역사는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전도자에게 집중된다.

(4) 역대하 16:9에는 능력이 나온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이다. 심장을 내놓는 것이다. 나의 관심을 다 내놓는 것이다. 내 뜻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체험을 올리는 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제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영접자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잠을 안 잔다 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내게 영혼을 붙여 주셨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러시아에서 18년을 사역하다가 사건이 터져서, 교회도 집도 다 내놓게 되었다.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동원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계속 생각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쓸개즙이 올라올 정도였다. 그 어려운 때에 아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다. "아빠, 임마누엘이야." 그 한 마디가 점점 내 속에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다 잃어버렸는가? 다 빼앗겼는가? 괜찮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게 하셨다. 나는 한 도시에 꼭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전 러시아 현장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다. 땅 끝, 만민, 모든 족속이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순회사역인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 '여기가 종사오매' 하는 분이 있는가?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은 베이

스캅프인 참사랑교회에 있지만, 꿈과 비전은 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여기 앉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러시아 전체를 보게 하시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페테르부르크까지 횡단하면서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25년 동안 다락방을 반대하던 합동측 선교사가, 복음에 답이 나서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이다. 러시아 현지인과 기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러시아 말도 잘 못하는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 현지인이 도전을 받았다. 작년에 보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받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임마누엘의 현장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

3. 미션

그러면 미션이 나온다. 이것이 다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이 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0:10에, 도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다. 미션은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자르지 마라. "나는 살리는 자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귀한 비밀을, 부르심과 임마누엘의 체험 가진 사람에게 맡기신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이 착한 일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다.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5:17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에 마음만 가지고 현장에 조금만 인도받으면 된다. 공부를 하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이 한다? 그것은 아니다.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 방향을 맞춘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열어주신다.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그래서 쉬운 것이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실천할 것이 있다. 구역장, 권찰이 이것을 시도해 보라.

(1)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다. 매일, 매일이다. 매일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모해서 묵상하고 포럼해 보라.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 번 그려 보라. 집중훈련 때 나오는 말씀 아닌가. 나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 나에게 굉장한 무기가 된다. 한번 도전해 보라.

(2) 기도다.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동부교회에서는 이게 유행이 되었다. 하루에 세 번 기도가 아니라, 예배다. 하루 세 번 기도는 잘 안 되던데, 예배의 꿈을 가지니까 되더라. 몇 사람들이 그룹을 정해서, 5명, 10명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반드시 응답된다. 하기만 하면 기도 체질이 된다.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3) 전도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나는 전담만 하는 것이다. 매일 영접운동이다.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한 번 해 보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중에 안 되는 분도 만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운동이 계속되면서 제자를 만나게 된다. 300명 영접운동을 해 보라. 구역장님들이 이것을 모델로 보여주시면,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실 것이고, 미션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결론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복음, 전도, 선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은 너무나너무 좋은 분이시다. 전도하면 돈도 있다. 구두도 있다. (웃음) 그 안에 밥도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